

61 광주광역시 61주년 기념사업
MILLET 공동주최
MOUNTAIN BY EXPERIENCE

엄홍길과 함께하는
한국 명산 16좌 등반

<12> 합천 황매산



밀레 한국명산 16좌 원정대의 13번째 산행이 지난 24일 국내 최대 철쭉 군락지로 꼽히는 경남 합천군 황매산 일원에서 이뤄졌다. 이날 산행에는 엄홍길 대장을 비롯한 1500명이 참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하늘과 맞닿은 초원·진분홍 철쭉... 산상화원이 여기있네

병풍처럼 우뚝 선 '모산재' 기암괴석 장관
국내 최대 철쭉군락지 5월이면 인기 절정
이국적 풍경 '웰컴투동막골' '마의' 등 촬영
美 CNN 선정 '한국의 절경 50선'에 들기도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한국명산 16좌 원정대의 13번째 산행지는 국내 최대 철쭉 군락지인 경남도 합천군에 소재한 황매산(1108m)이었다. 매년 5월이면 하늘과 맞닿은 드넓은 평원을 진분홍빛 철쭉들이 산상화원(山上花園)을 만들어 등산객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는 산이다. 최근엔 미국 CNN이 선정한 '한국의 절경 5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황매산은 소백산과 지리산 배례봉과 함께 철쭉 3대 명산으로 꼽힌다. 이날 산행은 광주·전남·전북지역 밀레 직영점 및 대리점 고객으로 구성된 1500여 명의 원정대가 참여했다. 지난해 5월25일 계룡산 등반을 처음으로 시작한 밀레 한국명산 16좌 원정대의 산행은 이날 황매산 산행으로 1년을 맞았다. 원정대는 5월의 분홍빛 황매산 철쭉을 보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버스 30여 대를 나눠타고 3시간을 달려 합천에 도착했다. 산행은 덕만주차장에서 시작해 황매산 기적길 2코스의 철쭉길을 따라 오토캠핑장~황매평원~철쭉군락지~사방댐을 거쳐 다시 덕만주차장으로 내려오는 코스로, 3시간 가량 소요됐다. 여름을 맞이하는 숲은 더욱 푸른 녹음을 더했고, 계곡의 물 소리는 더

욱 시원스럽게 들리면서 힘든 산행의 시각과 청각을 즐겁게 했다. 5월 이긴 하지만, 이미 날씨는 한여름이다.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산행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시원한 숲도 내리치는 피약벌의 뜨거운 햇살을 이기지 못했다. 이따금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졸졸 흘러내리는 땀을 식히진 못했다. 그래서인지 그늘 밑 계곡이 최고의 휴식처로 꼽혔다. 등산로 주변 계곡은 일제감치 자리를 잡은 등산객들로 북적거렸고, 일부 원정대들도 계곡 물에 시원스럽게 머리를 담그며 더위를 쫓았다. 덕만 주차장에서 1.5km 가량 오르면 잘 정돈된 오토캠핑장이 나온다. 지난 3월 개장한 캠핑장 주변에는 자생식물관찰 탐방로 등이 조성돼 가족 단위 나들이 장소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캠핑족들의 입소문을 타고 '별과 바람의 평원'이란 별칭도 얻었다고 한다. 캠핑장을 지나면 넓은 평원이 끝없이 펼쳐진다. 황매평원이다. 과거 목장을 조성했던 평원으로, 구룡진 초원이 하늘과 맞닿아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이 때문에 이곳에서는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웰컴투동막골' '방자전' '내 머리 속의 지우개'와 드라마 '선덕여왕' '마의' '각

시탈' 등의 많은 영상물이 촬영됐다고 한다. 평원을 지나 본격적인 철쭉 군락지를 오르는 원정대들의 얼굴에는 아쉬움이 가득했다. "일주일 전만 왔더라면" 하는 아쉬움 때문이다. 군락지의 철쭉 꽃 대부분이 지는 바람에 황매산의 황홀한 철쭉 장관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해서다. 철쭉이 절정을 이뤘다면, 주변의 산릉을 포함해 그야말로 진홍빛 철쭉의 바다였을 것을 많이 아쉬웠다. 하지만, 철쭉 제단을 지나는 정상 부분에 일부 철쭉 꽃들이 여전히 분홍빛 색깔을 잃지 않고 원정대를 반겼다. 전체 철쭉의 30%가 아직은 꽃을 피우 원정대들의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달래줬다. 본래 황매산 철쭉 군락지는 소떼들의 방목장이었던 곳으로, 소들이 독성 있는 철쭉만 남겨놓고 모두 먹어치워 지금의 장관이 연출됐다고 한다. 이날 산행을 동행한 하창환 합천군수는 "한국 명산 중 한 곳인 이곳 황매산에서는 지난 14일부터 철쭉제가 개최됐고, 지난주 철쭉이 절정을 이뤘다"며 "지금은 철쭉의 70%가 졌지만, 아직도 산 주변에는 철쭉 향기가 덮고 있어 철쭉 향기에 맡겨 취해 돌아가셔도 좋다"고 말했다. 그들을 찾아 볼 수 없는 푸른 평전과 산릉을 지나 베를벙을 거쳐 내려오는 하산 길에는 병풍처럼 우뚝 선 '모산재(767m)'의 기암괴석을 볼 수 있다. 한편, 철쭉군락지를 배경으로 황매산에서는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철쭉제가 펼쳐졌다. 개화시기에 맞춰 해마다 열리는 철쭉 축제는 평균 50만명 이상이 찾는 지역 대표 축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밀레 한국명산 16좌 원정대원들이 24일 황매산 철쭉 군락지 사이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TRUE PRODUCTS, REAL PEOPLE

사람보다 높은 산은 없다
다가가기도 어렵고
헤아리기도 힘들다
그래도 올라야 할 산이라면
진실하라
진실하라

진실이 오른다
이웃도어의 진실-밀레

WWW.MILLET.CO.KR
MILLET
MOUNTAIN BY EXPERIENCE